

午後의球場

늦은봄기다리든土曜日날.

午後세時半의京城行列車는、

石炭煙氣를자욱이 품기고、

소리치고 지나가고

×

한몸을꿍을기에 强하든.

공(뽕)이磁力을잃고

한목음의물이

불붙는목을 축이기에

넉넉하다、

젊은가슴의피循環이찾고、

두鐵脚이 늘어진다、

×

검은汽車煙氣와함께、

풀은山이

아지랑저쪽으로

까라안는다、

一九三六、五月

오후의 球場

늦은 봄 기다리던 토요일 날.

오후 세시 반의 경성행 열차는

석탄연기를 자욱이 품기고

소리치고 지나가고

×

한몸을 꼬을기에 강하던

공(뽕)이 자력을 잃고

한 모금의 물이

불붙는 목을 축이기에

넉넉하다.

젊은 가슴의 피순환이 찾고

두 철각이 늘어진다.

×

검은 기차 연기와 함께

푸른 산이

아지랑 저 쪽으로

까라앉는다.

1936. 5.